



2024년 / 12월 3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2월 17일(화) : 의병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가안 제출
- 12월 20일(금) : 의병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원 소식

- 신규 회원 안내

이번 주에도 연구원 문을 열고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셨습니다.

이섬관 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섬관 회원은 우리 연구원 윤상원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연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중국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현재 전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중국현대정치사와 중국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정기 후원회원으로 더 자주 더 많은 연구원 사업에 함께할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 2024년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송년회 개최

사연만났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연구원 송년회가 지난 토요일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12.3 내란과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국과 한겨울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모두 마흔 다섯분의 회원이 참가해 올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5년을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전임 원장이신 이강안 광복회 회장님께 공로패를 일년 동안 가장 많은 사업에 참가한 박해숙 회원과 가장 많은 회원의 추천인이셨던 이연숙 회원께서 우수회원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2024년 송년회 이모저모



■ 역사 속의 오늘

99.92%의 득표율 - 1972. 12. 23.

1972년 10월 17일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키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비상국무회의 설치 등의 비상조치를 감행했다. 정부가 발표한 4개항의 비상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72년 10월 17일 하오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 ②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 하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 ③ 비상국무회의는 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한다.
- ④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

1972년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공고되고 한 달간의 공고기간 동안 정부는 계몽활동을 벌여 11월 21일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반대운동이 금지된 일방적인 개헌안 국민투표는 1,441만 714명이 투표해 91.5%에 이르는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확정된 '유신헌법'은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토록 하고, 국회의원 3분의 1도 여기서 뽑기로 하는 등 '국체의 변혁'에 가까울 정도의 비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통치체제의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제적 1인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유신헌법'을 만든 것이다.

사실상 천황제나 다름없는 10월 유신의 후속작업인 간접선거가 이어졌다. 박정희는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거에 단독출마,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유신체제를 가동시켰다. 박정희가 무력을 동원한 비상수단으로 체제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은 3선개헌에 이어 또 다시 개헌을 단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7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고전한 데다 야당에 의한 국회의 비판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때문이었다.

정당원이 배제된 가운데 대의원 2,359명이 전원이 표면적으로 무소속이었다. 선거 당일 1972년 12월 23일에 1명의 결석도 없이 전원 장충체육관에 모였고, 박정희는 2,357표로 당선되어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이자 자신의 삶에서 4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당시 충남 대전시 제1선거구 대의원이었던 송동헌은 훗날 증언을 통해 2표의 무효표 가운데 한명이 자신이었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당선된 후 12월 15일 경 당선자를 소집하여 대의원 리셉션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중앙정보부에서 나와서 봉투에 백지를 넣어주며 용지에 한문과 한글로 주소, 성명을 써내라고 하였다. 이렇게 글씨를 미리 받아놓는 이유는 글씨체와 지문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12월 23일 제8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22일 대의원들은 각 도별로 여관에서 교육을 받고 잠을 잤다.

(중략) 기표소는 각 도별로 2개씩 있었고 명패함과 투표함이 있었다. 대의원 호수대로 이름을 불렀다. 선관위 여직원 둘이 하나는 명패를 주고 하나는 투표용지를 주었다. 투표용지는 우편엽서만한 용지였는데, 접지도 못하게 아주 뽀뽀한 용지였다. 용지의 전면에는 금박이로 '제8대 대통령 투표용지'라고 인쇄돼 있었고, 이면에는 '박정희' 이름을 쓰도록 흰 여백으로 되어 있었다. 반대 개념이 성립 안 되는 용지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의도적으로 목숨을 걸고 유신 독재 체제를 비꼬기 위해서 투표용지에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의'라고 써서 투표함에 넣고 투표장밖으로 나왔다. '정의'라고 쓴 것은 희는 늙어 빠져서 쓸데없는 역사의 폐물이 되지 말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나의 외침이었다.

제8대 대통령 선거 비화 《향토연구 제36집》, 충남향토연구회 에서